

(주)NDS

전문화로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

지난 12월 1일 농심데이터시스템에서 사명을 개정한 NDS는 1993년 1월 설립 이후 SI 및 Network, IBS를 중심으로 제조/유통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업체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SI 본부에서는 SI 및 NI, 정보보호 솔루션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동작구 신대방동 SM 본부에서는 SM 사업부문을 담당한다. 이 밖에 부산과 대구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 지방 대도시 IT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주)농심 그룹 본사 사옥

지난해 NDS는 2000년을 '도약을 위한 한 해'로 삼고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설립 이래 최초로 1000억원 대의 수주실적을 기록, 영업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고, '전문화로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슬로건 'Share The Future', 그리고 '믿음을 심는 기업, 전문화로 앞서가는 기업, 미래를 나누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IT 전문기업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명을 '주식회사 엔디에스(NDS)'로 개정하고,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분야별 본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10월에는 '전문화로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핵심 역량을 집중시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특화 제품을 보유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특정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명성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2000년을 기반으로 2001년은 다음 세 가지를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SI사업 분야는 제조산업분야, 유통물류 산업분야, 텔레콤 산업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 및 유통물류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그룹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e-

(주)NDS

NICE, CRM 등 핵심 솔루션 확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텔레콤 산업분야는 NDS의 새로운 경쟁우위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레콤 및 네트워크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전략적 제휴를 맺은 에릭슨, 알카텔, 어바이어, 루슨트 등과 올해에도 지속적이며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중계기망 원격관리 시스템(REMS) 등 자체 솔루션의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화로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

한편, 지난해 본부 체계를 갖춘 정보보호사업은 인터넷 기반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그룹을 중심으로 정보보호관제서비스(GSS)사업의 전개 등 올해에는 보다 다양한 부문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GSS(Global Security Service)란 NDS정보보호 사업팀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관련 도탈 서비스를 일컫는 말로써, 전반적인 보안 관련 사항을 대행해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네트워크통합 분야의 경우에도 ATM-PON, Home Gateway 등 광가입자망 중심의 특화된 제품 및 솔루션을 ETRI,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진해야 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NDS는 핵심인력의 지속적 발굴 육성을 미래가치를 증대시키는 열쇠라고 여긴다.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NDS 역시 인력 중심의 전문기업으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운영에 관련된 제도 신설과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속 발굴, 설치해 각 구성원의 전문분야별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지식경영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반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금년 회계기간부터는 신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올해에는 전사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을 계획이다.

이는 분산된 지식의 체계화로 지식경영에 따른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NDS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에 대한 신뢰감은 NDS가 구축하거나, 또는 구축중인 시스템들을 보면 자세히 나타난다.

먼저 의약품 공동 물류센터 구축을 살펴 보자.



약 600억원 규모의 의약품 공동 물류센터 구축사업은 국내의 열악한 의약품 유통구조, 의약 분업 실시,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생산, 판매 중심의 물류 개념에서 벗어나 공급자, 도/소매자,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SCM)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성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전국의 35개소 지역 배송센터와 연결, 전국적으로 분포된 요양기관(병원,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 의약품을 실시간 수·배송할 수 있는 최첨단 물류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의약품 물류센터가 설치되면 중전에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중복적·개별적으로 행사하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보관·공동배송하는 의약품 특성에 맞는 물류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는 의약품 물류 공동화 및 유통 물류체계를 합리화해 의약품 유통물류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의약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IDC 구축에 최적임 회사라는 명성 이어가

다음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 부분을 살펴 보자.

BLU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영이 최근 급증하는 매출 증가를 보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시스템 관리의 유연성을 갖춰 미래시장에 더욱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7월 완공되는 (주)우영의 신정보시스템을 NDS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유기적 자료 연계, 처리, 통합관리 등을 통해 전사적 정보 공유와 전략적 경영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업무의 중복 처리를 배제하고 각 부문별 정보 통합으로 사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영차원의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GUI와 C/S 등 검증된 컴퓨팅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WEB 기반 기술을 적용, 전사적인 정보 활용 관리가 가능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진일보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NI 분야에서의 PSINet IDC 구축도 자랑할만 하다.

NDS(주)는 PSINet의 인터넷 데이터센터 IDC(GIHC:글로벌 인터넷 호스팅 센터)구축 공사를 수주했다. NDS는 KT(한국통신)-IDC의 설비 공사와 한국통신 하이텔 IDC 구축에 이어 PSINet의 IDC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NDS는 설비구축, 서버, 고객관리, 설비 관리, 보안등 IDC 구축의 핵심 아이템 기술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IDC 사업의 중추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설비 부문에서도 IBS, N/W

(주)NDS

부문 국내 TOP 5에 해당하는 환경 구축 경험을 지니고 있어 IDC 구축에 있어 최적임자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엔지니어링 분야의 컨설팅과 디자인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Syska & Hennessy(시스카 앤 헤네시)와 전략적 제휴 체결 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IDC 구축에 좋은 시너지를 형성하고 있다.

에릭슨과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통신프리텔 IP 백본 네트워크를 구축한 텔레콤 분야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통신프리텔은 NDS가 공급할 에릭슨의 패킷 백본망을 통해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CDMA 사업자에서 IP에 기반을 둔 무선인터넷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발전하게 됐다.

현재 약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프리텔은 초고속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해 기존 음성중심의 서킷 네트워크를 IP 데이터 전송을 위한 패킷 네트워크로 전환시켜 연속적인 고성능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IP 백본 솔루션을 공급받게 된다.

품질 경영면에서도 NDS(주)는 ISO 9001:2000모델을 기반으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2000년 10월 ISO 9001을 획득했으며, 2001년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 Capability dEtermination ISO 15504)프로세스 능력 평가 및 IBEC(International Business Excellence Class)을 경영 및 개선전략으로 연계하고, TL 9000 및 정보보안 관련 표준(BS7799)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2000년 2개의 프로젝트의 SPICE 심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능력 (Level 2)을 평가받았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세스 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교육 사업 전개

국내 5개 보안업체와 학계가 공동 출자한 정보보호 전문교육센터(가칭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를 설립했다. 비씨큐어, 안연구소, NDS, STG 시큐리티, 한시큐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교육센터, 성균관대학교 정보보호인증기술연구센터가 참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교육 사업을 전



개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 기반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테러는 뜻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실무 가능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NDS는 학계 및 전문 업체와 함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국제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는 고도의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장기 전문가 과정과 분야별 전문가를 위한 단기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기존의 IT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새롭게 정보보호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관련 교수진이 이론 교육을 담당하고 이와 함께 교육센터 설립에 참여한 업체들이 각 전문 분야별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NDS 관계자는 "이번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설립으로 그동안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던 정보보호 교육이 학계와 정보보호 전문 업체의 공동참여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돼 국내 보안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교육사업 진출의 의미를 밝혔다.



대표이사 김용서

NDS를 책임지고 있는 김용서 대표이사는 61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5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74-75년 Fujitsu Computer Institute(동경소재) 졸업, 79-82년 Claremont Graduate School (MBA,CA,USA), 89-94년 국민대학교(경영학 박사) 등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67년 쌍용양회(주) 입사를 시작으로, (주)쌍용컴퓨터 이사 86.3-88.12 상무 이사 89.1-93.12 전무이사 94.1-94.12 (주)쌍용컴퓨터 부사장 95.1-98.3 (주)쌍용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 했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NDS(주)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처리산업진흥회 부회장, 한국멀티미디어컨텐츠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정보산업표준회 이사, 한국 S/W 개발 연구조합 이사, 한국정보통신감사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산업정보학회 고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컴포넌트 컨소시엄 부회장, 한국정보처리전문가 협회 이사, 정보통신진흥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 91년 국내정보산업발전 공로상(체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전략정보시스템, CHARLES WISEMAN 원저 번역)이 있다.

김용서 사장은 2001년 신년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How-To에 해당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방법론과 전략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과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NDS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것을 임직원 모두에게 당부했다.